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27주일, 군인 주일
2021. 10. 03. (나해) 제2288호

제주보

같이 개인 날
두산성당

J S T O
J A D
f Bernard
2021.8



두산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창세 2,18-24 **화답송**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제2독서** 히브 2,9-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
에게서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0,2-16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
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건강한 군중 사제를 위하여



군중 | 한지환 가브리엘 신부

올해 임관하여 육군 이기자성당에 부임한 한지환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부족한 제가 군인 주일을 맞아 글을 신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떤 강론을 써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이 남녀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과 동떨어져 보이는 듯한 말씀이지만, 서품을 통해 주님의 도구가 된 본인, 특별히 군인이라는 신분이 더해진 저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강론에 담아보았습니다.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하고 묻습니다. 저는 이 물음을 제 상황에 맞게 ‘군인이 된 사제 한지환이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져도 됩니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군인일까, 사제일까?’라는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수단을 입고 미사를 주례하며, 신자분들을 만나왔던 제가 이제는 군복을 입고 부대로 출근하여 신자 아닌 이들을 마주합니다.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군 업무에 관한 것들뿐, 하느님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사제관으로 돌아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지금 나의 삶이 사제로서 합당한 모습일까?’ 이러한 물음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고민에 대해 군중사제의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선배 사제들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군복을 입고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그전에 우리는 도유(기름 바름)를 통해 하느님의 도구, 사제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속 바리사이들처럼 하느님을 시험하려 했구나!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려했구나!’ 이런 건강한 성찰을 통해 현재는 행복하고 기쁜 군중 사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떼를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훌륭한 목자가 필요하듯, 군 장병들이 올바른 신앙심을 갖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군중 사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장병들의 신앙선도와 신앙심 고취를 위해 좋은 몫을 택한 군중 사제들이 건강하고 기쁜 사목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필문**

-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 -

“내 남은 재능을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나눕니다.”

고산노인복지관 한글교실 교육봉사자 | 안옥량



인생의 꽃 같은 젊은 시절과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중장년 시절을 지나 어느덧 흰머리 희끗희끗한 노년기로
접어들면 후련함과 아쉬움이 뒤섞여 만감이 교차하게 된다.
많은 이들은 바쁘게 살아온 지난날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

안옥량(한글교실 교육봉사) 선생님은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아이들을 가르치던 본인의 재능을 나누려
고산노인복지관에서 한글교실 교육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평생 교편을 잡으며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와서인지, 은퇴 이후 한동안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하나 하는
공허함과 우울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동네에 새로 생긴 노인복지관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노래도 배우고 여가시간을 보내는 그저 즐거운 곳이라니 생각
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문득 ‘한글교실’에 오시는 할머니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다. 늘 모자를 꼭 눌러쓰
고 안경으로 얼굴을 가려서 한글을 배우러 다니는 것을 숨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한글을 몰라 불편하고 가슴 아팠을 여러 상황들에 공감하
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익힐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할머니들의 자존감을 높여 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봉사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운 삶, 사회에 보탬에 되는 삶에 대해 고민
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인생은 길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은퇴 이후의 삶은 내가 자
유롭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나다운 시간인 것 같다.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과거의 나는 내려놓고 이제는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으로 의미 있게 채워가고 싶다. **꽃은**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산노인복지관(대구 수성구 신매동)은 지역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각종 정보와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기관입니다.

말씀의 해 (2021-2022)

잘 살고 계십니까?

교구 사목국

올해 2021년부터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발표된 교구장 장기사목계획에 따라 교구 설정 120주년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해로 “하느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말씀의 해”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해”를 시작하면서 교구는 우리가 좀 더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해 안내지」와 「주교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통독 40주간」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 말씀의 해 안내지

현재 “말씀의 해 안내지”는 지난 9월 19일(연중 제25주일/ 37호)부터 구약의 세 번째 부분인 시서와 지혜서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구 사목국 다음카페(<https://cafe.daum.net/dgsamok>)에 들어오셔서 성경알기 정답을 확인하시고, 짧은 묵상글도 나누어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주교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통독 40주간 2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을 위해 성경통독 40주간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초대합니다. 더불어, 지난번 1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2기를 모집합니다. 2기는 오는 11월 28일(대림 제1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 9월 말에 끝이 나게 됩니다. 2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http://bible40weeks.org>)에 접속하여 개별신청(신청비 40,000원, 노트 포함)하실 수 있고, 1기에 신청하셨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비 없이 다시 신청,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문의: 250-3057).

하느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필름**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완석’(完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유중성(柳重誠) 마태오는 전라도 전주의 부유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집안의 장남이던 부친이 3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이후 그는 전주 초남(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있는 작은 아버지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의 집에서 자라게 되었다. 1801년의 신유박해 순교자 유중철 요한과 유문석 요한은 그의 사촌 형제들이다.

마태오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데는 작은 아버지 유항검과 그 가족들의 영향이 컸다. 실제로 유항검은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으며, 가족과 친지들에게 널리 교리를 전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1801년 박해가 일어나자 마태오의 집안에서는 유항검과 유중철이 먼저 체포되었고, 그는 9월 중순 무렵에 어머니를 비롯하여 다른 친척들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 옥에 갇혔다. 그의 어머니는 체포된 지 얼마 안되어 석방되었다. 그러나 유중성 마태오는 다른 친척들과 함께 순교를 약속하면서 굳게 마음을 다졌다. 다음은 그와 함께 갇혀 있던 사촌 형수 이순이 루갈다가 옥중에서 쓴 편지 내용이다.

“우리 다섯 사람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천주를 위해 순교하자고 언약하고, 철석같이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한 결과 우리의 원의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 자연히 온갖 후회와 근심 걱정이 잊혀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천주의 은혜와 은총은 쌓이고, 우리 마음에는 신락(神樂)이 더해지며, 아무 걱정도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태오는 사촌 형수 이순이와 함께 친척들을 대표하여 ‘법에 따라 처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유배형을 받고 함경도 회령으로 떠나게 되었다.

마태오는 친척들과 유배지로 가는 동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관장이 국법에 따라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지 않고 유배를 보냈다.”라고 외쳤다. 그러자 전주 감사는 그들을 다시 옥에 가두었다. 마태오는 감사 앞으로 끌려나가 문초와 형벌을 받고, 다음과 같은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을 하였다.

“천주교는 집안에서 전해오던 신앙입니다. 유항검 등 삼촌들이 영광스럽게 죽었으므로 그들과 같이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태오는 1802년 1월 31일(음력 1801년 12월 28일) 친척들과 함께 숲정이라고 불리는 전주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 그의 나이는 약 18세였다. 당시까지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었다.



유중성 마태오
(1784 ~ 1802년)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2021년 제54회 군인 주일 담화

군인들에게 복음을 _ “슬기로운 종”

천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범 티토 주교님의 제54회

군인 주일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7. 예수님 바라보기 : 가정의 소명 ㉗

혼인한 부부들은 혼인성사 때에 받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바탕으로 “끈기 있게 전진하고, 마침내 그들의 생활 안에서 이 신비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더욱 완전한 통합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해석은 부부의 선익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적절합니다. 이러한 부부의 선익에는 일치, 생명에 대한 개방성, 신의, 불가해소성이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 혼인에는 주님과 완전한 친교로 향하는 길에서 서로가 도움을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악을 극복하려는 모든 행동에 기뻐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가정, 곧 성령이 살아 계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정을 이 세상에 실현하려는 이들은 민족, 종교, 지역에 상관없이 감사와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사랑의 기쁨’, 76~77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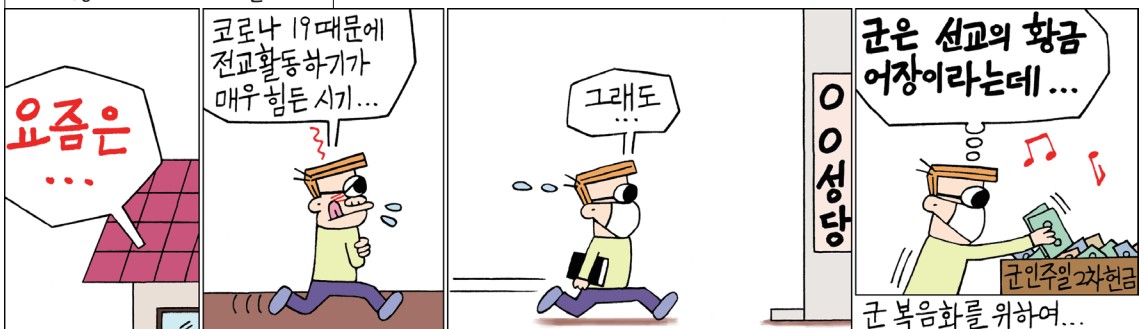
중고제품을 이용해보기(제품의 생산과 폐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감소)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38호 정답

1. 주님을 경외할 때 2. 옳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 옳이 스스로 하느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므로 3. 지각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4. 42,5 :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많은 정성과 기도를



박성규 엘리지도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4일(월) 11:00 성동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4일(월) 11:00 죽도성당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4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0월 4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선교센터 후원회미사	10월 4일(월) 11:00 성모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9일(토) 10:00 월성성당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0.10(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해독, 효소단식 성경통독 피정

일시: 매월 3, 4주 목~일 3박 4일

장소: 성모솔숲마을

지도: 박상호 요한 신부

문의: (054)373-3955 / (010)6630-3816

묵주기도 피정

일시: 매주 목 11:00~16: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10:00

문의: (010)9045-0191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성지(추자도)순례, 자연순례(올레길)

기간: 10.15~18 / 10.21~23 / 11.6~9

신청: (02)773-1463

(064)756-6009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재속가르멜회 회원 모집

첫째주 일요일 팀: (010)3308-1004

첫째주 월요일 팀: (010)4525-2467

넷째주 일요일 팀: (010)6549-1852

넷째주 월요일 팀: (010)3532-7337

마감: 11월 모임 전 / 대상: 55세 이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료까지

당일진료 가능합니다.

검진센터: 670-5959

(09:00~17:3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2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 목 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 부 문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 신 청 2021년 10월 14일 ~ 12월 14일 • 접 수 우편 또는 전자우편(caff@cbck.kr)
- 문 의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모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100m)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앞 ☎ 053-959-7175
010-9597-7175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충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 신속 확장 이전 —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대한민국 대표! **일일메트**충판 **핵한일의료기** **온수메트**
소금염좌속기 게르마늄옥메트 대구충판

파크골프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선수용

(주)매일프라자
김흥은(요셉) 010-9804-8008
유흥단지동 45 전차판 1층 239우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발아 정형외과
AL-A

무지외반증, 족발근막염
발목 인대 손상, 평발 깔창 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별발친구)
수원구 팔달대거리에서 롯데캐슬방향 500m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혈당계·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주사기·보호대·틀·부항기
주열가·체온계·욕창매트·환자용품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기·찜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공정직영도매(동고령IC)

삼우싱크

이웅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대구 용산점, 철곡 구암점

싱크,볼바이,신발장,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성만(이나시오) 신부
1976년 10월 3일
- 윤광제(다윗) 신부
2010년 10월 4일
- 부(클라우디오) 신부
1930년 10월 5일

행사 | 모임

10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0.17(일) 14:00
장소: 남산동 신학교
대상: 중1~대학·일반

해외선교기금마련 김마리아수녀 개인전

기간: 10.11(월)~23(토)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남대영기념관
주제: 바람이 분다
문의: 남대영기념관, 629-1117

코로나 힐링 전시회

대구 작은예수의 집 25주년 기념
코로나 극복 힐링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10.14(목)~19(화) 10:00~19:00
장소: 계산동 성당 내 CU 갤러리
예약: 정 테레사 수녀, (010)8644-1971

교육 | 모임

대건고등학교 입학설명회

10월: 21일(목), 28일(목)

11월: 16일(화), 23일(화)
매주 금요일 소규모 상담 가능
신청: 대건고 홈페이지
문의: 235-4560

2022학년도 무학교 신입생 모집

존중과 감사로 행복을 배우는 무학교
대상: 경북지역 중3학년 졸업예정자
고입설명회: 10.23(토) / 11.20(토)
기숙사 운영(원거리 우선)
문의: 854-801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책으로 떠나는 신앙여정, 제대꽃꽂이,
사범꽃꽂이, 연필초상화, 캘리그래피,
정리수납전문가, 문인화, 섬유공예,
오카리나, 우쿨렐레, 장구, 성물도예,
성가반주오르간 / 신청: 254-6115

2022학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 설명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입학 설명회를 비대면
ZOOM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입
학설명회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10.15(금)
까지 어린이집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설명회: 10.20(수) / 문의: 256-6862

무료병원 성심복지의원 봉사자 모집

분야: 치과의사, 위생사, 약사, 간호사
문의: 256-9494

바오로딸 10월 신앙아카데미

일시: 10.16(토) 15:00~16:30
주제: 소소돌방, 행복한 도장가게

강사: 강신성 작가
사전예약: 바오로딸, (010)6681-5185

CLC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영성 강좌

일시: 10.13~11.17 매주 수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주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랑의 힘, 사랑의 질서와 영적 훈련
수강료: 8만원 / 문의: 283-9898

채용 | 안내

무태성당 성가대 반주자 채용
문의: 성가대 단장, (010)3516-1911

대구가톨릭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2018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58세 이하
문의: 616-2141 / 615-2141

군위묘원 2차 관리비·사용만기 분묘안내

2011.1.1 이전 장례하신
묘주께서는 관리비 납부 바랍니다.
분묘사용 30년이 된 묘주께서는
관리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레이저 백내장 노인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 의수술(소피아), 홍정홍(대건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리스토리결혼정보

대구신문 칼럼 연재중 | 리스토리TV 유튜브 진행
'결혼하는 비밀' 출간, 방송 언론 다수 출연
23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녀님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한국성지 167 완주

(주)미카엘여행사
10.25(월)~28(목) 대건교구
11.8(월)~11(목) 전주·광주·대교구

제주성지순례 3일

10.11(월)~10.14(목) 10.18(월)~10.20(수)
11.01(월)~11.04(목) 11.15(월)~11.17(수)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헬스텍피아 보청기
HEALTHTECHPIA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무료보청기적합 ◆ 청력재활프로그램
◆ 고성능, 최신형, 고음질 보청기

053)961-2525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공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중 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